건축전기설비기술사 합격수기

1) 기술사 지원 동기

대학시절 외부 교수님(지금의 선*엔지니어링의 이** 기술사)님의 강의를 듣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때 처음으로 건축전기설비 기술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때는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자격도 없었기에 남의 나라 이야기였지요..

시간이 조금씩 흐르고 학교를 졸업하고, 군 제대 후, 전기공사 기사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공사기사 자격을 취득과 동시에 한보철강(현. 현대제철)이라는 철강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고, 전기공사 기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면서 책을 보고 달~달 외웠던 내용들이 실제 대규모의 플랜트 설비 내에서 실제로 보게 됨으로써 책의 내용들을 몸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기기사 자격시험을 지원하여 바로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쌍기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시간이 흐르고 저도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어느날 영풍문고를 가서 전공책을 보게 되었는데, 어느 학원의 기술사 서브노트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때 수기로 작성되었던 내용이었는데, 와~우, 대단하게 보였습니다. 세상에나…..대단하더군요..

2) 기술사를 적극적으로 알아보다

네이버에 검색하니 전기박사라는 카페를 알게 되었고, 그 곳에 가입하여 예전 대한영상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땅히 시간내기가 곤란하여 온라인 강의 이재언 기술사님의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제기술계산 핸드북이라는 책을 알게 되었고, 동영상강의를 들으면서 틈틈히 기술계산핸드북을 즐겨 보았습니다. 의제 명심보감강의도 즐겨 보았지요.

3) 기술사 시험장에서 첫 시험을 치르다.

공부를 하면서 이론이 조금씩 또렷해지는 것 같아 첫 시험을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치렀습니다.
첫 시험 87 회.. 결과는 47 점..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많이 나오더군요..
결혼 후 첫 아이가 출산하였습니다. 예쁜 딸 아이입니다. 집에서 공부는 이제 못합니다.
오프라인 학원은 절대로 가지 않고 내 스스로 노력하여 기술사를 취득하겠다라는 마음을 독하게 먹고 꾸준히 책을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회사내에서 자투리 시간을 절대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틈만 나면 책을 보았고, 남들 놀 때 인터넷으로 자료 검색하고, 동영상보고, 자료 출력해서 정리…
회사에서 한 눈 팔 시간이 없습니다.
서브노트는 따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시험때가 다가와 시험을 치렀고, 49 점이 되더군요..
약간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인터넷 가입 카페에서 약 2 달간 스터디를 한다고 하여 참여하였습니다. 최동수 기술사님이 지도해 주셨습니다.
답안 작성방법에 대해 지도 받고 열심히 쓰기 노력을 하여 시험에 응시하여 점수가 57 점이 나오더군요..
이때만 하더라도 곧 기술사 시험 합격할 줄 알았습니다.

4) 점점 좌절에 빠지다.

이쯤에 우리 둘째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집에서는 더더욱 바빠집니다.
조금씩 손으로 쓰기는 덜 하게 되고, 머리로만 공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점수가 하향 곡선을 그립니다.
49 점, 42 점,,50 점대 초반….… 기술사 첫 시험볼 때 47 점 이었는데 한숨만 나오더군요..
이론적으로는 대부분 다 이해한 것 같은데 시험장만 가면 답안의 내용이 부실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문제 출제방향이 제가 생각 하는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5) 고난의 연속

우리 셋째가 태어납니다. 이제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육아방식에 있어 절대로 어린이집은 보내지 않기로 하여 힘든 상황에서도 아내는 열심히 육아에 노력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내는 이

육아방식을 고집합니다.
회사에서 업무와 기술사에 관해 고민과 스트레스. 집에 돌아가면, 육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살은 조금씩 빠져 체중이 12kg 까지 감량되더군요.. 소화불량에 지금까지도 고생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렇게는 안되겠다 싶어 아내에게 얘기하여 저녁 시간을 내어 배드민턴 클럽에 다니기 시작합니다. 솔직히 아내에게 많이 미안했지요..
일주일에 2~3 번(월,수,금)은 저녁에 운동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배드민턴 실력이 부족하여 그 또한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차라리 혼자하는 운동을 할 걸 후회도 많이 했습니다. 파트너와 함께 하는 운동이라 여간 어려운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왕 시작한거 열심히 하여 남들 하는 만큼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아직도 포기 안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초보에서 갓 벗어났습니다.

6) 답안 작성 방향에 대해 고민하다.

답안 작성방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떻게 적을까? 뭐가 부족한걸까?
몇 날 몇 일을 고민해봐도 똑 같습니다. 답 안 나옵니다.
빨리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몸도 힘들고 마음도 지칩니다. 주변에서는 기술사 언제 되냐고 묻습니다.
아내는 저를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안되면 빨리 포기하지 뭘 그리 집착하냐고…….

7) 2013 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느껴집니다. 지금까지 기술사 시험을 위해 걸어온 시간만 7 년… 중간 중간 일에 쫓기고, 죽어라 공부해서 그래서 아파서 시험장에 못가고…사연도 많았지요.. 항상 50 점대 초반에서 더 이상 점수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오프학원을 가야겠다라고 느낍니다. 아직까지 서브노트를 만들지는 않았고(솔직히 필요성을 못 느꼈지요..)
멘붕이 오기 시작합니다. 남들은 서브노트를 시험 전에 몇 번 봤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부러우면서도 막상 작성하려니 어렵더군요….. 그래서 더욱 안 만들게 되기도 하구요..
그리고, 남들은 답안을 도대체 어떻게 작성하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나도 그 이상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하였지요.
학원 몇 곳을 인터넷으로 검색하여 학원을 골랐습니다. 오진택전기학원입니다. 전화로 반경애 원장님, 오진택 원장님과 한~참을 상의 끝에 학원등록을 결정합니다.

8) 오프 학원등록을 하다.

2013 년 11 월. 학원 개강하는날, 촌 놈이 상경하여 지하철로 학원을 찾아갑니다.
영등포역 1 호선 1 번 출구쪽에 밖을 보니 학원 간판이 보입니다.
'내 반드시 합격하여 학원 합격자 명단에 올리리라.. 감히 말하건데 그 기간은 반드시 짧을 것이다….'
마음 속으로 다짐에 다짐을 하고 학원 입구에 들어섰습니다. 개강시간보다 늦은 오후 2 시 40 분경..
학원이란 곳을 처음 가보았습니다. 어색하기 그지 없습니다. 빨리 적응해야 한다. 살아 남으리라..토요일마다 모의고사를 치르고, 학원 수업 듣고를 반복하였습니다. 다른 분들 작성하신 모의고사답안지와 서브 노트들을 보게 되었고 저의 부족한 점이 보입니다..

9) 서브노트 작성에 들어가다.

저도 이제는 서브노트 필요성을 절감하고, 곧바로 열심히 작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서브노트 작성하면서 그림도 그리고 내용도 채워가면서, 지금껏 모르고 있었던 부분을 알 수 있었고, 쓰면서 머리속에 정리가 되더군요..
분명히 느끼는 것이지만, 내 손으로 작성한 부분은 서브노트 어디쯤에 있다는 것이 기억되고, 그 부분은 분명 내 손으로 작성한 것이기에 더욱 나의 기억에 남아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10) 학원 수강후 첫 시험을 치르다.

2014 년 2 월. 학원 수강 후 첫 시험을 치릅니다.
답안 작성방향은,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하고 내용만 배운 내용을 추가로 작성. 왜냐하면 무엇이 문제인지를 찾아야했기에…..

102 회….. 결과는 49 점..
밤새 고민하며 생각해보았습니다. 답이 나왔습니다.
첫번째로, 답안작성 포맷을 바꿔야겠습니다. 답안지 제출하면서 느꼈던 부분이지요.
철저히 오 원장님 답안지를 참고하여야겠다고 느꼈습니다. 번호따기부터 말이지요..
두번째로, 쓰기가 아직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절대적 키워드 암기 부족이 보입니다.
답안지에 이빨 다 빠지고, 무슨 점수를 기대할 수 있으랴…..
절대적 아쉬움을 뒤로 하고 서브노트 만들기를 열심히 하였습니다. 진작에 만들어 놓았으면 좀 편했을걸~~…

11) 104 회를 기술사 합격 최종시험으로 정하다.

학원 진도에 맞추면 내가 작성한 서브노트 진도에 맞지 않아 시험일전에는 또 다시 원점으로 다시 돌아올 걸 알기에 학원 수업은 나의 진도에 맞추어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하루 중의 시간을 더욱 쪼개기 시작해야 했습니다.
나의 진도에 맞추어 공부를 하였고 틈틈히 키워드 암기 시작하였습니다. 지난주 학원 진도내용 서브노트 만들기를 시간만 나면 하였습니다. 이 두가지를 병행 하다보니 막상 토요일 모의고사 때에는 서브노트를 덮어놓고 써보기를 한번도 못해보고 모의고사를 치른적도 많았습니다.
학원을 다니면서 다른 분들 서브노트도 구경하였습니다. 대단들 하십니다. 부럽습니다.
금방 합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 나는 언제 저렇게 만들까…. 마냥 부럽습니다.
동기부여가 많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반드시 적자생존이기에 노력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토요일 학원가는날은 늘 이랬습니다.
아침 9 시에 집을 나서 터미널에 도착하면 9 시 15 분, 버스타고 서울가면 10 시 50 분. 영등포 학원까지 지하철로 도착하면 11 시 30 분경…근처에서 점심 사먹고, 학원 들어가면 12 시 10 분경….
잠깐 앉아 책보고 잠시후 모의고사,,,
수업끝나면 17 시 30 분. 다시 터미널로 지하철로 이동. 버스타고 집으로… 집에 오면 20 시 20 분경.
토요일은 정신없이 하루가 지나갑니다. 힘듭니다. 일요일은 또 출근..
이렇게 약 3 개월을 더 합니다.. 모의고사를 여러 번 치르면서 자신감이 더해집니다.
답안 포맷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10 점과 25 점 문제에 대해 그림과 수식들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2) 104 회를 위해 103 회 시험을 치르다.

103 회 시험 전 날..
솔직히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 시간에 서브노트 차라리 더 작성할까. 아니면 자료정리할까 망설입니다.
그래도 시험장은 가자….가서 열심히 적고 오자.. 마음 굳게 먹습니다..집에서 수원으로 출발..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먹고 점심 김밥 2 줄과 생수를 사서 시험장에 1 시간 30 분정도 일찍 도착하여 좋은 책상을 선점하게 됩니다. 휴지를 테이프로 고정시키고 이면지에 쓰기 연습을 합니다.
1 교시에 처음 답안 작성시 늘 진도가 빨리 나가지 못하는 원인이 시험 시작전에 손이 제대로 풀리지 않아 그렇다는 것을 알고 쓰기 연습을 하여 근육을 깨우기 시작하였습니다.
비타민도 챙겨 먹고 모든 준비를 마칩니다.

종이 울리고 시험 시작되어 답안 작성 들어갑니다.
역시나 사전에 쓰기 연습을 한 덕을 봅니다. 예상했던 것처럼 글쓰기가 아주 잘 됩니다..
답안 작성시에 미리 다짐 하였던 부분을 상기하면서 포맷을 그립니다. 열심히 씁니다.
순수 질문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만 핵심을 찌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역시나 외운 놈이 효자 노릇 하고 있습니다.
2,3,4 교시는, 내가 기술한 내용을 채점자가 보고 “그래서 어쩌라고?” 물을때의 내용들을 내가 느끼고 고민하고 접했던 내용들을 더불어 적어봅니다. 어떻게든 수식은 집어 넣으려고 애를 씁니다.
처음 접하는 문제에 대해 그림까지 즉석해서 만들어냅니다. 모의고사 연습을 해서 인지 그림배치가 마음에 듭니다. 매 교시마다 “이하여백” 확인하고 “끝” 확인하면서 답안지 제출 할 때 102 회때 제출하던 나의 모습을 떠올려봅니다. 지금의 답안지가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좀 더 꽉찬 답안지로 보입니다. 아쉬움이 밀려오면서 답안지를 체출합니다.
다음 104 회에는 더 꽉찬 답안지로 만들어보리라....다짐합니다.

13) 104 회를 목표로 달리다.

학원에 또 다시 등록하여 104 회를 준비합니다. 103 회는 그냥 지나가는 시험에 불구하고 나의 공부의 중심은 104 회에 있었으니 합격자 발표일을 안 보려 노력했습니다.
학원공부와 서브노트 작성, 키워드 암기의 반복적인 시간의 연속이 지속됩니다. 이제 서브노트가 약 80%정도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몇 달을 고생하였건만 아직도 80%라니..
이제 콘덴서일부, 피뢰기 일부 ,계산문제 조금 남았다…. 원장님께 건의드렸다…. 콘덴서/피뢰기/계산문제를 강의교재 만드실 때 같이 좀 넣어달라고 부탁드렸다… 정리의 혼돈이 있어서다..
학원 교재는 그 주에 서브노트로 정리하고 버릴려고 노력하였다.

14) 합격 소식을 접하다.

103 회 합격자 발표일을 계속 모르고 있었는데 발표 전 주 수업시간에 발표일 얘기가 나왔다. 괜히 합격하지도 못할 시험에 가슴 두근거리며 공부 못하느니, 떨어졌다 마음 굳게 먹고 무조건 공부에 올인하기 위해서다. 103 회 시험장에서는 감독관 설명시 아예 귀를 막아버렸다. 그런데 발표일을 알아 버렸다.
그때부터 역시나 마음이 싱숭생숭하다.. 쩝.
시험 발표하는 주에, 4 박 5 일 과정의 경기도 안산의 중소기업 연수원에 연초에 사외교육 신청한 건축전기설비기술사 과정의 교육을 들었다. 발표일 전날은 숙소에서 맥주캔을 여러개 마셨다.. 떨어질 시험에 괜히 마음 싱숭생숭하느니 그냥 먹고 뻗어 버리자 하는 마음에서다… 그런데도 잠은 겨우 잤다.
다음날은 104 회 접수일이여서 그런지 더더욱 잠이 안 왔다.
다음날 아침 9 시가 되기 전부터 가슴이 많이 두근거렸다. 수업시작 시간과 비슷한 시간에 공단에서 합격을 알리는 문자가 왔다. 9 시 정각에……!!
합격 소식을 접하고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뻤다. 가장 먼저 아내에게 합격소식을 알리고, 원장님께 합격소식을 전했다. 감사했다.. 아주 많이..
아내는 이제 지금까지와는 다른 나를 눈으로 쳐다본다… 나보고 존경한단다.. 이제는 나보고 기술사님이라고 부른다.
가족들 전체가 축하해줬다. 회사에는 2 차 면접이 부담스러워 알리지 않으려 했지만, 몇 일 후 들켜버렸다… 축하해줬다..2 차 면접이 더욱 더 부담스러웠다.

15) 2 차 면접준비를 하다.

이제는 2 차 면접준비이다. 이력카드 작성부터 어려웠다. 여러 기술사님의 자문을 받았다.
주**, 오** 예비기술사님과 같이 면접 준비를 하였다. 수요일과 일요일, 일주일에 2 번, 3 주 동안 업무를 마치고 서울과 집을 오가는 강행군의 연속이었다.. 당일날 서울 올라갔다가 다시 집으로 내려와야 했다. 원장님과 봉 교수님 덕분에 면접 준비를 충실히 할 수 있었고,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었다. 만약에 그대로 면접 보러 갔다면 무조건 떨어졌으리라..

16) 면접시험을 치르다.

면접일 당일 날… 그날따라 참 비도 많이 오고 바람도 세게 부는 날이었다.
아침 8:00 시… 인력공단 앞에 차를 주차하고, 긴장된 마음을 추스리고 오전 면접을 마친 오**, 주** 예비기술사님을 만나 차 한잔 마시고 점심을 같이 했다. 오전에 물어왔던 내용들을 전해 들었고 준비할 수 있었다. 오후 3:00 타임이라 한 참을 기다려야 했다. 4 시 30 분경에 면접 부스에 들어가 5 시가 다 되어 나왔다.
첫 면접이라 굉장히 긴장되고 떨렸지만, 면접관 님께 최대한 겸손한 모습과 내가 답변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하여 최대한 성의를 다하여 답하려고 노력하였다. 열심히 준비하였기에 제발 합격하기를 간절히 바랬다.

17) 최종합격을 하다.

최종 합격자 발표일까지 약 한 달을 기다려야 했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고 또다시 면접 준비를 하여야 했지만, 얼른 책이 손에 들어오지 않았다. 기술사 생각만 하면 심장이 벌렁거리고 두근거렸다. 애써 딴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였다.

8 월 22 일 아침 9 시 정각..
1 차 합격자 발표때는 9 시 정각에 문자가 날아왔다. 몇 분을 더 기다렸다. 문자가 안 왔다. 떨어졌다고 생각했다. 많은 아쉬움이 밀려들고 한숨이 나왔다.
아쉬운 마음으로 공단 홈페이지에서 점수 확인하려고 들어갔더니 면접 결과가 합격이었다. 어? 문자가 안 왔는데?.... 다시 확인하였지만, 합격이었다. 너무 좋았다. 눈물이 났다.
옆에서 같이 결과를 확인하던 직원들이 축하한단다… 아내에게 최종 합격소식을 전하고, 원장님께 합격소식을 전했다. 통화중에 문자가 날라왔다. 전화 끊고 확인해보니 공단에서 합격 소식 문자다.. 좀 빨리왔으면 애간장 타지 않았으련만..

18) 지금까지를 돌아보다.

지금까지 참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왔습니다. 해 수로 8 년을 건축전기기술사에 투자했습니다.
처음 공부 시작할 때, 이론적으로 궁금한 부분들에 대해 누구에게 물어볼 곳이 없어 한 주제에 대해 일주일을 넘도록 고민한적도 있었습니다. 참 힘들었습니다.
1 차준비를 너무 긴 시간 동안 어렵게 하였기에, 그 시간들 동안 많은 책을 보게 되었고 이론적으로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기술사 시험을 빨리 합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술사라는 꿈을 놓지 않고 꾸준히 책을 보며 본인의 역량을 키워 나가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암기보다는 이해 위주의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원리를 파헤치려고 노력했으니까요.
그래서 수험기간이 길어졌습니다. 원리를 파 헤친 부분보다는 다른 부분에서 시험이 출제되다 보니, 시험장에서 제대로 쓰지 못했던 것이었지요... 하지만, 이해위주 공부를 하고 나니 암기는 좀 더 수월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 하나를 이해하였으면 그 것들을 통째로 하나의 기둥으로 묶으니 암기가 좀 더 수월하더군요.. 그래서 책의 목차를 외우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또한, 답안 구성 형식등을 갖추는 연습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기술사 시험을 달~달 외우는 자격으로 볼 자격시험으로만 볼 것인지, 아니면 기술사 공부를 하면서 체계적인 이론 공부를 할 것인지는 본인이 알아서 선택하여야 할 듯 합니다. 저는 기술사 처음 시작할 때, 기사시험보고 머리에 남는게 별로 없는 것 같아 체계적 이론 정립을 목표로 삼았었습니다.

16) 도움 주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끝으로 사랑하는 제 아내와, 대한영상의 이재언 기술사님, 짧은 기간 동안 힘드신데도 스터디를 이끌어 주신 최동수 기술사님. 반장 박복필 기술사님, 학원에서 답안 작성의 절대적 도움을 주시고 면접 또한 지도해 주신 오진택 원장님. 반경애 원장님. 봉우근 기술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끝.

2014 년 9 월 초보 건축전기설비기술사 김대현.